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7월 28일 금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江原日報	03면	여야 지역·당협위원장 새얼굴 등장하나	1
강원도민일보	03면	빨라진 총선 시계… 도내 당협·지역위원장 후보 면접 완료	1
강원도민일보	03면	도의회 부의장 후보 '3파전' 치열한 경선 예고	2
江原日報	03면	윤길로 도의원 출마 선언 … 부의장 3파전	2
江原日報	03면	“수난사고 70% 여름 집중”	3
강원도민일보	온라인	강원도내 수난사고 7~8월 피서철 집중… 박기영 도의원 “…	4
CBS	온라인	박기영 강원도의원 "수난사고, 안전대책 강화 시급"	5
연합뉴스		강원 3년간 수난사고 2천371건…"피서철 안전대책 만전을"	6
江原日報	온라인	강원일보.춘천시 '춘천 바이오 클러스터 기업혁신 파크 포…	7
江原日報	02면	춘천 기업혁신 파크 포럼	8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이무철.심오섭.김시성.박관희.박호균.윤길로.최종수…	9
강원도민일보	10면	[동정] 박관희 도의원	9
강원도민일보	10면	[동정] 이무철 도의회 경제통상위 부위원장	9
江原日報	04면	“교권 침해 원스톱 지원하겠다” ‘배상보험’ 손 보는 도교육…	10
강원도민일보	02면	"강특법, 국가 재정지원 구속력 없어 한계… 재정특례 필요"	11
江原日報	01면	자치도 특례 1호 프로젝트 '대관령 산악관광' 유력	11
강원도민일보	02면	'자매결연 20주년' 강원특자도-몽골 튜브도 우호교류 확대	12
강원도민일보	04면	태백 인구감소율 '전국 3위' 접경·폐광지 소멸위기 심각	13
강원도민일보	02면	정선 함백산 자장율사 순례길 걸으며 힐링을	14
강원도민일보	04면	"제2경춘국도 안보리 구간 교통대란 우려"	15
강원도민일보	04면	농작물 호우피해 그대론데 폭염까지 … 도내 농가 시름	16
강원도민일보	21면	[사설] 20돌 대관령음악제, 명품 축제 기대	17
강원도민일보	21면	[사설] '강원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서둘러야	18
江原日報	25면	[사설] 고향사랑 기부 전국 2위, 道 결집 새로운 신호	19
江原日報	25면	[사설] 출생아 두 달 연속 역대 최소, 지역 소멸 막을 대책…	20

2023 07 28 ()

03

江原日報

여야 지역·당협위원장 새얼굴 등장하나

국힘 조강특위 원주를 면접 ... 민주 이르면 오늘 최고위서 선임

여야가 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공식인 지역·당협위원장을 채우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지역정가에 새로운 얼굴이 등장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9개월을 남겨두고 지역조직을 이끌 수장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공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새 인물'에 집중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27일 오후 원주를 당협위원장 공모에 신청한 김기홍(45) 강원특별자치

도의회 부의장과 최재민(39) 도의원 등 신규 신청자 2명을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사무총장 등 조강특위 위원들은 이들을 대상으로 '도의원과 국회의원의 역할 차이' 등에 관해 심층적인 질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이미 신청했던 권이중(51) 변호사, 박동수(65) 변호사, 안재운(58) 미래교육아카데미 대표, 윤용호(67) 대한생활체육회 강원도회장, 장승호(53) 한국도시발전연구소 대

표, 전병선(66) 전 원주시의원 등에 대한 면접은 마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지난 24일 강원특별자치도 내 홍천-횡성-영월-평창 등 전국 8곳 지역위원장 공모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마쳤다. 지난 3년여간 직무대행으로 관리돼 온 '홍천-횡성-영월-평창' 지역위원장에는 허필홍 전 홍천군수가 단독으로 신청했으며, 단수 추천으로 최종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르면 28일 열리는 최고위원회회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한 지역위원장 선임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서울=이하늘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07 28 ()

03

빨라진 총선 시계... 도내 당협·지역위원장 후보 면접 완료

여야 고지탈환 목표 조직재정비
국힘 원주를 김기홍·최재민 참여
민주 홍형영평 허필홍 단독 신청

내년 총선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며 강원 총선판이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

여야는 공식인 당협·지역위원장 후보 면접 절차를 속속 완료했다.

도내 공식 위원장의 경우 국민의힘은 원주를 당협, 더불어민주당은 홍천·횡성·영월·평창 지역위이다.

원주율은 민주당 송기현 의원이 3선 도전에, 홍형영평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재선 도전에 각각 나섬에 따라 여야는 탈환을 노리며 조직재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27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원주를 당협을 비롯한 36곳의 사교당협의 위원장 후보 면접을 마쳤다.

원주를 면접에는 김기홍·최재민 도의원 등 2명이 참여했다.

앞서 권이중·전병선·박동수·윤용호·장승호·안재운 등 후보가 면접을 봤지만, 조강특위는 원주를 당협을 그 대로 공식으로 남겨뒀다.

당시 함께 이뤄졌던 춘천·철원·화천·양구갑 당협위원장 공모엔 노용호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바로 임명됐다.

이는 총선 후보군 발굴에 당의 고민이 깊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원 중원 표심 핵심지역인 원주는 매 선거마다 '격전지'가 되는 곳이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도내 투표수가 가장 많았던 원주에서 김진태 지사는 당시 이광재 후보에게 0.35%p 차로 패했다. 원주표심이 여야 모두에게 그만큼 팽팽한 상황이다.

이런 정황들을 감안하면 여권은 선택지를 확장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에 발탁된 원주출신의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합

께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차기 총선과 맞물려 여의도 정가에서 적지않게 회자되고 있는 흐름은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민주당 입장에서 '중원 격전지' 원주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곳이다. 당장 원주갑 선거구 탈환이 목표다. 원주갑은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지난해 6월 실시된 보궐선거를 통해 꺾발을 쫓았다. 민주당은 차기 총선을 통해 고토 회복을 노리고 있다.

도내 여권 한 관계자는 "원주는 수도권 분위기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지만 결국 인물 경쟁력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신중론을 펼쳤다. 민주당에선 현

재 원창목 전 원주시장이 지역위원장을 맡아 총선 재도전 의사가 있다. 또, 여준성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활동하고 있다.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도 후보로 거론된다.

민주당 조강특위도 홍천·횡성·영월·평창 지역위원장 공모 면접을 완료했다. 단독 신청한 허필홍 전 홍천군수는 지난 2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면접을 봤다. 이날 허 전 군수는 홍천외 횡성, 영월, 평창 등의 활동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허 전 군수는 27일 본지 통화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설화 loli@kado.net

2023 07 28 ()
03

강원도민일보

도의회 부의장 후보 '3파전' 치열한 경선 예고

한창수·김기하·윤길로 출마 의사

속보=강원도의회 부의장 선거(본지 7월 27일자 3면)가 점화됐다.

국민의힘 소속 한창수·김기하·윤길로 의원등 3명이 출마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치열한 경선에 예상된다.

윤길로(영월) 의원은 27일 박찬홍 국민의힘 원내대표 면담 뒤, 오는 9월

부의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윤 의원은 "공정하게 경쟁을 하겠다"며 "누가 되든 의정을 이끄는 축이 될 수 있도록 경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후보는 현재까지 3명으로 압축됐다. 앞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은 여러 차례 회의를 열고 한창수 기획행정위원장의 출마를 합의했다. 김기하(동해) 의원도 이미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들 후보

세 명은 벌써부터 동료의원들에 전화를 돌리는 등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

조선의원들은 의장단에서 '선수'로 부의장 출마 자격을 강조한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 한 조선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부의장 출마를 위원장단이 정할 일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위원장단에서 추대했다고 해서 조선들이 따라갈 것도 아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본지 통화에서 "8월 중순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경선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설화

江原日報

2023 07 28 ()
03

윤길로 도의원 출마 선언 ... 부의장 3파전

앞서 출마 밝힌 한창수·김기하 도의원과 불꽃 경쟁
도의회 국민의힘 내달 16일께 의원총회 열어 결정

속보=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직(본보 지난 25일자 3면 보도)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윤길로(영월) 도의원은 27일 도의회 기자회견을 찾아 출마를 선언했다.

앞서 한창수(횡성)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교육위원회 소속 김기하(동해) 도의원이 부의장 출마를 공식화한 바 있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출마를 선언한 세 의원 모두 기초의회 의장을 지낸 경험까지 갖춰 선거로 결정될 경우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윤 의원은 선거규칙이 확정되고 참여가 가능하면 도전을 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는데 이날 박찬홍(춘천) 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의에서 출마 자격에 제한이 없음을 확인하고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이날 "갑작스러운 부의장직 공석에 대한 안타까움과 경선까지 치러야 하나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선수에 따라 의장단을 정하는 관행을 혁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조선 의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연구회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도의회 상임위원장들이 모인 가운데 부의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한창수 기획행정위원장은 "의원들이 지역 주민들을 대표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김기하 도의원은 이날 "조선 의원



◇한창수 의원



◇김기하 의원



◇윤길로 의원

으로서 지난 1년간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상임위원으로 어려운 사항에 대해 해결하고 싶고, 끝까지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오는 9월 임시회 전인 다음 달 16일께 의원 총회를 갖고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찬홍 원내대표는 "현재로서는 세 명의 뜻이 확고한데 끝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42명 국민의힘 도의원이 모인 가운데 투표 등의 방식을 통해 부의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정기자 together@kwnews.co.kr

江原日報

2023 07 28 ()
03

“수난사고 70% 여름 집중”

박기영 안전위원장 대책 촉구

박기영(국민의힘·춘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이 27일 전체 수난사고 10건 중 7건이 여름철 발생한다며 피서철 안전대책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이 조사한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에서 발생한 수난사고 구조건수는 총 2,371건으로 특히 8월이 961건으로 전체 건수의 40%로 가장 많았다.

박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재난안전실과 소방본부, 18개 시·군이 선제적인 안전 대책을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정기자 together@

2023 07 27 ()

강원도민일보

강원도내 수난사고 7~8월 피서철 집중... 박기영 도의원 "안전에 만전"



▲ 박기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바다, 하천 등에서 발생하는 강원도 내 수난사고가 7월~8월 등 여름 피서철에 집중돼 각별한 안전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박기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이 도 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 간 도내 수난사고 구조건수는 총 2371건이다. 월별로는 8월이 961건(40%)으로 가장 많았고, 7월 391건, 9월 289건이 뒤를 이었다. 수난사고의 70%가 여름철에 집중되는 셈이다.

박기영 위원장은 "올 여름은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된 2016년보다 더 무더울 것이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본격적으로 벗어나는 시점과 맞물려 강과 해변을 찾는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피서지가 집중된 강원특별자치도에선 재난안전실과 소방본부, 그리고 18개 시·군이 선제적으로 안전대책 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소방당국에 당부했다.

도 소방본부는 경포 해수욕장 등 18곳에서 '119 시민수상구조대'를 내달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이설화

?

?

2023 07 27 ()

CBS

박기영 강원도의회 "수난사고, 안전대책 강화 시급"

강원CBS 박정민 기자
핵심요약

지난 3년간 강원도내 수난사고 2371건, 피서철 집중
박 의원, 관계기관에 "피서철 안전대책 강화" 당부
도 소방본부, 시민수상구조대 본격 운영 등 대책 마련



강원도 구조구급 훈련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는 박기영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강원도의회 제공 강원도 수난사고 10건 중 7건이 여름철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돼 피서철 수난사고 예방대책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박기영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춘천3)이 강원도 소방본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강원도에서 발생한 수난사고 구조건수는 총 2371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8월 발생 사고가 961건으로 전체의 40%로 가장 많았고 7월 391건, 9월 289건 등 전체 수난사고의 70%정도가 여름철에 집중됐다.

박 위원장은 "2022년 수난사고 구조건수가 978건으로 2021년에 비해 168%가 급증하고 있다. 올여름 기상예측에 따르면 엘니뇨현상이 2023년 다시 발생해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된 2016년보다 더 무더울 것이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본격적으로 벗어나는 시점과 맞물려 강과 해변을 찾는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선제적 안전대책 수행을 당부했다.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소방본부 차원의 안전 대책과 함께 경포 해수욕장, 하천, 강 등지에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다음 달 말까지 운영해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원CBS 박정민 기자

강원 3년간 수난사고 2천371건..."피서철 안전 대책 만전을"



박기영 강원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피서철마다 강원지역 바다와 계곡 등에서 수난사고가 잇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7일 박기영(춘천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이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년)간 수난사고는 총 2천371건이다.

특히 7월(391건)과 8월(961건)에 절반 넘게 발생했다.

박 의원은 "올여름 기상관측에 따르면 2016년보다 더 덥고,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벗어나는 시점과 맞물려 강과 해변을 찾는 이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도 재난안전실과 소방본부, 각 시군은 선제적인 안전대책 수행에 온 힘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강원소방은 수난사고 예방을 위해 8월 말까지 경포해수욕장과 하천.강 등 18곳에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한다.

conanys@yna.co.kr

2023 07 27 ()

江原日報

강원일보.춘천시 '춘천 바이오 클러스터 기업 혁신 파크 포럼' 개최

28일 오후 1시30분 한림대 국제회의실

Chuncheon Bio Cluster Corporate Innovation Park Forum

춘천 바이오 클러스터 기업혁신파크 포럼

일시 2023. 07. 28. 13:30 ~ 16:00

장소 한림대학교 국제회의실

주최 춘천시 江原日報社

주관 GANGIL BSG

강원일보와 춘천시는 28일 오후 1시30분 한림대 국제회의실에서 '춘천 바이오 클러스터 기업 혁신 파크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은 의료 분야와 IT,데이터 분야를 아우르는 차세대 바이오 산업을 육성, 정밀의료 복합 기업 혁신파크를 춘천에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춘천시는 기업혁신파크가 완성되면 160개 기업 유치와 4,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돼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럼에서는 류승한 국토연구원 본부장이 '정부정책:기업혁신파크 정책'을 주제로 기조 발표를 한다.

이어 정성훈 대한지리학회장이 '정밀의료 기업혁신파크', 이호상 다쏘코리아 대표가 '디지털 정밀의료 기업혁신파크'를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토론에서는 안무업 한림대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이원학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강태원 강원대 교수, 최종수 삼성서울병원디지털혁신센터 수석팀장, 김창혁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이무철 도의원 등이 참여한다.

江原日報

2023 07 28 ()

02

춘천 기업혁신 파크 포럼

강원일보와 춘천시는 28일 오후 1시30분 한림대 국제회의실에서 ‘춘천 바이오 클러스터 기업혁신 파크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서는 류승한 국토연구원 본부장이 ‘정부정책:기업혁신파크 정책’을 주제로 기조 발표를 한다. 이어 정성훈 대한지리학회장이 ‘정밀의료 기업혁신파크’, 이호상 다쏘코리아 대표가 ‘디지털 정밀의료 기업혁신파크’를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토론에서는 안무업 한림대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이원학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강태원 강원대 교수, 최종수 삼성서울병원디지털혁신센터 수석팀장, 김창혁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이무철 도의원 등이 참여한다. 신형철기자

2023 07 27 ()

江原日報

[동정] 이무철.심오섭.김시성.박관희.박호균.
윤길로.최종수 강원특별자치도의의원

이무철(춘천) 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오후 2시 한림대 국제회의관에서 열리는 춘천 바이오 클러스터 기업혁신 파크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

심오섭(강릉)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오후 7시30분 강릉 경포해변무대에서 열리는 제22회 GIJAF 강릉국제청소년예술축전에 참석.

김시성(속초).박관희(춘천) 도의원은 28일 오후 2시 도청 제2별관 범국민추진협의회 회의실 6층에서 열리는 관광·문화분야 워킹그룹 회의에 참석.

박호균(강릉) 도의원은 28일 오후 5시 강릉 강동면 풍호길 100-1에서 열리는 제13회 연이랑풍호마을 연꽃축제에 참석.

윤길로(영월).최종수(평창) 도의원은 29일 오후 6시 태백시 황지공원문화광장 일원에서 열리는 강원 남부권 산림·목재클러스터 성공추진 및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행사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3 07 28 ()
10

박관희 도의원은 28일 오후 2시 도청 제2별관 범국민추진협 회의실에서 열리는 강원특별법 관광·문화분야 워킹그룹 회의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07 28 ()
10

이무철 도의회 경제통상위 부위원장은 29일 오후 6시 30분 춘천봄내극장에서 열리는 춘천연극제 코미디 공연 시상식에 참석한다.

江原日報

2023 07 28 ()
04

“교권 침해 원스톱 지원하겠다” ‘배상보험’ 손 보는 도교육청

‘교원배상보험’ 민·형사 소송 초점에 보장 범위 좁아 유명무실
민간 보험사 → 학교안전공제회 이관 ... 긴급경호 등 확대 추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민간 보험사를 통해 실시해오던 ‘교원배상책임보험’ 개편에 나선다. 보장 범위를 넓히고 교육활동 침해 시 원스톱으로 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도교육청은 27일 “민간 보험사 대신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교원의 학교 및 교육활동 관련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법률상 손해 배상금, 변호사 비용, 형사방어 비용 등을 지원하는 보험이다. 강원도의 경우 도교육청이 민간보험사에 도내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에 대해 일괄 가입하며 민사 소송 1건당 2억원 한도, 형사 소송 1건당 5,000만원

한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 지원이 민·형사 소송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보장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최근 3년간 강원지역의 교원배상책임보험 지급 및 청구 건수는 9건에 불과하다.

도교육청은 “교사에 대한 긴급 경호 서비스나 분쟁 조정지원 등은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보장 서비스로 꼽히는데 민간 보험사에서는 시행이 불가능하다”며 “학교안전공제회로 해당 업무를 이관하면 어느 정도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 및 충남교육청은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교원안심공제제도’를 운영중이며 교원의 교육 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긴급경호

부터 상담·치료·분쟁조정·배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서울 및 충남의 선례를 바탕으로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와 협의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추진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지원이 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및 운영 목적에 맞는지 여부를 정확히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충남도교육청도 이를 둘러싼 법률 해석을 내리는 데만 4년여가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는 오는 11월께 이사회를 열어 도교육청의 요청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은 학교안전공제회와 협의를 하기 위한 테이블을 차린 단계”라며 “협약이 잘 이뤄지면 타 지역의 사례 등을 모아 여러 보장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원선영기자 haru@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 07 28 ()
02

“강특법, 국가 재정지원 구속력 없어 한계…재정특례 필요”

지방세연구원 연구논문서 제기
“구제적 지방세 특례 포함 안돼”
재정안정성 법적 확보안 강조
지역 맞춤 특례 효과 검증 조언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정한 국가
의 재정지원 규정이 구속력이 없는 임
의 규정이라는 한계점이 있다는 지적
이 나왔다.또한 선행 특별법이 정한 특례를 무
조건적으로 수용하는 대신 맞춤형 특
례 도입을 통해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
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한국지방세연구원 이지는 연구위원
은 27일 발표한 연구논문 '특별자치도
지방세 특례 설계시 고려사항'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이지는 연구위원은 “전부 개정된 강
원특별법에는 국가가 강원특별자치도
에 여러 형태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모든규정이 임의적인 형태여서 그 지원의
구속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지방세에 관한 구체적인 특례
도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당초 도입
하고자 했던 재정특례를 위해서는 앞
으로 중앙정부 및 다른 자치단체와의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요할 것”이
라고 진단했다.그는 “지방세 특례가 주로 주민이나
이주 기업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방향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큰 데이 경우 특별자치도의 기본적인 재원
확충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
며 “과거 탄력세율을 활용한 지방세 세
율조정 특례는 과도한 조세 경쟁으로
중앙정부가 개입하는 등 문제점이 있
었던 전례를 감안해 선제적으로 자치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입법적 대안 마련
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지는 연구위원은 “강원특별자치
도법은 상당 부분 제주특별자치도법을
원용했는데 여건이 다른 강원도에서
과연 실효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 지의문이고, 제주특별법 입법 당시와 시간
적 격차도 적지 않아 그동안의 사회 경
제적 변화를 반영할지도 불투명하다”
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에 대한 세심한 고려와 지역적 발
전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인데 선례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은 지양하면서
반드시 특례 도입을 통해 지역에 예상
되는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검증이 수
반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궁창성 cometsp@kado.net

江原日報

2023 07 28 ()
01

자치도 특례 1호 프로젝트 ‘대관령 산악관광’ 유력

국무조정실 지원단 등 평창 찾아… 민자 1,700억 투입
정부 차원 ‘한국판 융프라우’ 추진되다 규제로 무산
‘산림이용진흥지구’ 특례 전격 도입 재추진 가능해져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를 활용한
첫 번째 프로젝트는 ‘대관령 산악관
광’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대관령 산악관광은 2015~2018년
정부의 규제프리존 정책 일환으로
‘한국판 융프라우’를 컨셉트로 추진
되다가 각종 중첩규제로 끝내 무산
됐던 사업이다. 하지만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
정할 수 있게 되면서 재추진의 길이
열린 데다 국무조정실에서도 최근
비공개로 현장을 둘러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
단과 강원자치도 특별자치추진단,
산림환경국, 평창군 등은 평창군 대
관령면 삼양목장을 포함한 대관령
산악관광 사업예정지를 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정훈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부단장과 박광섭 강원
지원과장 등이 참석했다.대관령 산악관광 사업은 삼양목장
에 2.4km 연장의 곤돌라, 산장호텔 10
개동, 산악빌라 66동, 글램핑장, 하늘
목장에는 3.5km 길이의 산악열차와
산장호텔 1동, 전량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1,700억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되며, 부가까지 유발 6,015억원,
일자리 창출 6,671명의 기대효과가
예상된다. 이 사업은 그동안 산지관리법과 자연환경보전법, 산림보호
법, 초지법 등의 중첩 규제로 사업 추
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표고
50% 이상, 평균경사도 25도 초과 지
역의 개발 불가,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민간의 궤도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등의 규제가 있기 때문이다.2015년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의 규제특례 전략산업 27
개를 확정했고 대관령 산악관광도
이름을 올렸다.하지만 2018년 ‘지역특화발전특
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정 당시 환
경훼손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대관
령 산악관광만 제외됐다. 도는 대관
령 일대가 산지가 아닌 사실상 초지
라는 점을 강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관령 산악관광은 이후 5년여간
사정됐지만 지난 5월 강원특별법 개
정을 통해 재추진이 가능해졌다. 산
림이용진흥지구 지정과 지구내 궤도
및 시설물 설치 가능한 특례가 일
부 도입됐기 때문이다. 다만 국유림
사용 허가 기준 완화 등 추가 특례도
일부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도 관계자는 “현 법규와 강원
특별법 특례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우선 검토하고 향후 산악관광특례를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answer07@**

강원도민일보

2023 07 28 ()
02

강원특별자치도 대표단(단장 정광열 경제부지사)은 27일 몽골 튜브도청 명예의집에서 몽흐바타르 텡베렐 튜브도지사 등과 강원-튜브도 자매결연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김덕형

‘자매결연 20주년’ 강원특자도-몽골 튜브도 우호교류 확대

도 대표단, 몽골 현지 기념식 참석
경제·관광 등 분야별 협력 약속

강원특별자치도와 몽골 튜브도가 자매결연 20주년을 맞아 경제와 문화·관광, 청소년 등 교류 관계를 확대한다.

튜브도를 방문 중인 도 대표단(단장 정광열 경제부지사)은 27일 튜브도청 명예의집을 방문, 몽흐바타르 텡베렐 튜브도지사 등과 자매결연 2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에는 정광열 경제부지사와 몽골 튜브도 몽흐바타르 텡베렐 튜브도지사가 참석했다.

몽흐바타르 텡베렐 튜브도지사는 “튜브도와 강원특별자치도는 20년이 라는 기간 동안 자매결연을 통해 수많은 교류 협력을 이어왔다. 튜브도에 있는 강원도 농업타운은 수많은 농업 기술을 전수해줬다”며 “향후 튜브도가 추진하는 철도 건설과 도시개발을 비롯해 문화, 관광, 청소년 교류 등 새로운 교류 협력의 새 장을 열어가자”고 했다.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농업 분야 교류 성과를 몽골 전체로 확산하기 위해 선양 지방정부 간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경제 협력의 경우 상호 이익이 돼야 지속될 수 있다”며 “철도, 신도시 개발

등 강원 기업의 투자와 노하우가 튜브도에 공유될 수 있도록 강원도 교류 국내 기업과 튜브도의 가교 역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몽골 튜브도/김덕형

강원도민일보

2023 07 28 ()
04

태백 인구감소를 '전국 3위' 접경·폐광지 소멸위기 심각

강원인구 증가 속 시·군 격차 여전
출생아 수 역대 최저 고령화 직면
태백시 매년 감소 4만명대 붕괴
화천지역 군부대 이전 등 직격탄

강원지역 고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태백, 화천의 인구감소율이 전국 최고수준을 기록하는 등 접경지역과 폐광지역의 인구감소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통계청의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강원지역 인구는 152만8037명으로 전년(152만1890명) 대비 6147명(0.4%) 증가했다. 그러나 인구 증가에도 도내 시·군별 격차는 여전했다. 수도권과 인접한 춘천(29만3124명)과 원주(36만1810명)의 경우 각각 6020명(2.1%), 4586명(1.3%) 늘어 도내 평균 증감률을 넘어섰다.

반면 태백은 -1282명(-3.2%), 화천은 -577명(-2.4%), 철원 -710명(-1.7%), 정선 -732명(-1.3%) 등 11개

2022년 강원도내 인구현황 (12월 말 현재)

지역	총인구(명)	전년대비 증감	증감률
강원도	152만8037	6147	0.4
춘천시	29만3124	6020	2.1
원주시	36만1810	4586	1.3
강릉시	21만5128	-1432	-0.7
동해시	8만6772	-492	-0.6
태백시	3만9113	-1282	-3.2
속초시	8만903	541	0.7
삼척시	6만4289	-175	-0.3
홍천군	6만5215	-443	-0.7
횡성군	4만4864	152	0.3
영월군	3만5654	-74	-0.2
평창군	3만8699	86	0.2
정선군	3만3354	-432	-1.3
철원군	4만1145	-710	-1.7
화천군	2만2545	-547	-2.4
양구군	2만824	-297	-1.4
인제군	3만905	235	0.8
고성군	2만7127	477	1.8
양양군	2만6566	-66	-0.2

지역은 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태백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인천 동구(-4.9%), 충북 영동군(-3.8%)에 이어 인구감소율이 3위에 기록됐다. 화천(221등)도 인구하락을 기준으로 9위를 기록하는 등 도내 시군의 인구감소가 심각했다.

태백은 2015년(4만6715명) 4만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평

균적으로 매년 1000명 이상 줄며 지난해(3만9113명) 처음으로 4만명대가 붕괴됐다. 화천은 군부대 이전 등의 영향으로 20~24세 연령대가 235명이 줄어 16.9%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25~29세도 114명(-6.0%) 감소했다.

도내 고령인구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강원지역 고령인구(65세 이상)는 34만1042명으로 전년(32만4129명) 대비 1만6913명(5.2%) 증가했다. 고령인구 비중도 22.3%로 전년(21.3%)보다 1% 높았으며 전국 평균(17.7%)을 상회했다. 반면 강원지역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102만7860명으로 전년(103만3229명) 대비 5369명(-0.5%) 줄었다. 유소년인구(0~14세)도 지난해 15만9135명을 기록해 전년(16만4532명) 대비 5397명(-3.3%) 줄며 처음으로 15만명대로 추락했다.

도내 출생아 수는 2016년(1만58명)부터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지난해 7300명으로 2021년(7357명), 2020년(7835명)에 이어 3년 연속 7000명대에 머물고 있다.

정우진 jungwoojin@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 07 28 ()

02

정선 함백산 자장율사 순례길 걸으며 힐링을

폐광지역 국보문화유산 활용 일환

내일부터 8일간 본지 주관 트레킹

11월 창작뮤지컬 아라리센터 공연

정선 탄광개발지역 문화유산 자원을 활용한 고원관광산업 육성프로젝트가 추진된다.

강원도·정선군이 주최하고 정선문화원·강원도민일보 주관, 정선군의 회·정암사가 후원하는 폐광지역 국보 문화유산 보존활용사업이 오는 29일부터 함백산 치유명상 트레킹과 창작 뮤지컬 공연으로 나눠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국보 수마노탑과 천년고찰 정암사 문화가치 제고는 물론 정선 탄광 개발 지역 홍보, 나아가 고한·사북지역 관광 브랜드화 사업 추진에 추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함백산 치유명상 트레킹은 오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만항재 일원과 정암사, 고한읍에서 열리는 2023년 정선 함백산야생화축제와 정암사 개산대제(8월 4~6일), 고한구공탄시장 야시장 운영 기간에 함께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함백산 정암사 자장율사 순례길과 만항재 운탄고도를 걸으며 치유명상 체험시간을 갖는다.

정암사 자장율사 순례길 코스는 정암사를 출발해 수마노탑을 거쳐 적조암~적조암 입구 3.9km 구간에서, 만항재 운탄고도길 트레킹은 만항재를 출발해 약수터~하이원CC 갈림길 구간 9.5km에서 각각 진행된다. 트레킹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창작뮤지컬 공연무대도 마련된다. 정암사 국보 수마노탑을 통한 정선의 아름다움과 함께 폐광 이후에 살아있는 지역의 모습을 보여주는 창작뮤지컬 '꽃피는 청춘'(가제)은 오는 11월 중 정선아라리센터에서 공연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폐광지역 국보 문화유산인 수마노탑을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지속적인 고원관광 브랜드화 작업을 통한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주현 joohyun@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 07 28 ()

04

“제2경춘국도 안보리 구간 교통대란 우려”

가평방향 진입 좌회전 신호등 설치
주민 “신호대기 없는 것이 편리” 지적
“교통량 조사결과 분석 계획” 설명

속보=춘천 서면 안보리 일대를 지나는 제2경춘국도(본지 7월 25일자 4면)와 관련, 안보리 구간 ‘라’ 교차로를 두고 인근 주민들이 교통 대란을 우려하고 나섰다.

원주국토관리청은 27일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경춘국도 4~5공구 실시설계용역에 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4~5공구의 경우 남산면 서천리부터 서면 안보리 4.3km 구간은 신설구간이며, 서면 안보리~당림리 3.3km 구간은 도로 확장으로 진행한다.

특히 이 자리에선 경기 남양주와 춘천 서면 안보리를 연결하는 안보리 일대 ‘라’ IC 구간에서 46번 국도를 이용해 가평방향으로 진입할 경우를 대비 좌회전 신호등이 생기는 점에 대해 주민들의 우려가 잇따랐다.

손창구 안보리1리 이장은 “이 구간에 신호등이 생긴다면 주말이나 연휴 기간에는 교통 지옥이 될 것”이라며 “신호대기 없이 사용하게 하는 것이 더 편리하

지 않겠다. 이렇게 된다면 입체교차로도 아니고 신호교차로도 아닌 어정쩡한 교차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원주국토관리청은 교통량 조사결과 이 구간에서 가평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많지 않다고 분석했다. 원주국토관리청 측은 “교통공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가평을 가는 경우 앞전에 IC가 있어 그곳을 이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이렇게 계획했다”며 “기본설계용역당시와 변경된 사안 없이 동일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제2경춘국도는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가평~춘천시 서면 당림리 33.6km 구간에 대해 왕복 4차로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공사구간은 총 5구간으로 구분된다. 1~2공구는 남양주시 화도읍~가평군 청평면 일대 15.8km 구간으로 서울국토관리청이 관리한다. 3~5공구는 가평군 청평면~춘천시 서면 일대 총 17.8km 구간으로 원주국토관리청 관할이다. 실시설계 용역은 올해 말까지로 예정됐다.

한편 제2경춘국도는 수도권과 춘천을 30분대로 연결, 기존 경춘국도인 국도 46호선과 서울~춘천 고속도로 교통량 분산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은 ssnnnee@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 07 28 ()
04

농작물 호우피해 그대론데 폭염까지...도내 농가 시름

9개 시·군 장마 피해 규모 126.34ha
도, 병충해 방제·침수지 배수로 정비

장마가 끝이 났지만 아직 강원도내 곳곳에는 복구되지 못한 농작물 피해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장마 이후 곧바로 폭염까지 이어지면서 병충해 발생 가능성까지 커지고 있다.

27일 기준 도 농정당국이 집계한 올해 도내 농작물 호우피해 규모는 9개 시·군 126.34ha로 확인됐다. 기상청이 지난 26일 정체전선이 물러나면서 장마가 끝난 것으로 판단했지만 호우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물이 빠진 뒤 이를 어떻게 복구해야 할지 망연자실해하

고 있다.

원주에서 포도농사를 짓고 있는 백모(71)씨는 이번 장마로 인해 포도 하우스 11개동이 모두 물에 잠겼다. 8월 중순 수확을 앞두고 있던 포도뿐 아니라 하우스에 있던 기계장비까지 모두 약 7000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백 씨는 “5년 동안 애지중지 키웠던 포도나무가 이제야 제대로 열매를 맺게 됐는데 그간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돼 난감하다”며 “복구작업을 하던 중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다.

더불어 장마가 끝나자마자 도내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배추 등 노지 작물의 병충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평창에서 고랭지 배추 농사를 짓고 있는 강모(62)씨는 “지난해에도 배추 무름병 탓에 피해가 컸는데 올해도 비가 많이 내린데다가 장마 끝나자마자 30도가 넘는 기온이 이어져 걱정이 크다”며 “최대한 수확할 수 있는 건 먼저 수확하고 남은 건 병해에 걸리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병충해 방제, 침수지 배수로 정비, 유실·매몰 정비 등 응급 복구에 나서고 있다”며 “피해 규모가 전부 취합되면 복구비 지원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호

강원도민일보

2023 07 28 ()
/ 21

20돌 대관령음악제, 명품 축제 기대

-한국대표 클래식 잔치 성원·지원 이어져야

평창대관령음악제가 개막해 내달 5일 까지 평창 알펜시아를 비롯한 강원도 일대에서 열립니다. 지난 2004년 처음 개최된 이후 20돌을 맞아 행사의 의미를 더합니다. 손열음 감독에게 배턴을 이어받은 양성원 예술감독이 기획한 축제가, 어떤 반응을 얻을지 음악계의 관심도 쏠리고 있습니다. 올해엔 1회 음악제의 주제인 '자연의 영감(Nature's Inspiration)'을 계승해 '자연(Nature)'을 테마로 진행됩니다. 26일 개막 연주회가 성황을 이뤄, 성공적인 일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0년 역사와 명성에 걸맞은 연주와 프로그램으로, 관객들과 예술적 공감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축제 주제인 자연과 어울리는 공연을 다수 구성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연주회에 선보일 R. 슈트라우스의 '알프스 교향곡', 메시아 '새의 카탈로그', 야나체크 '수풀이 우거진 오솔길에서', 비발디 '사계' 등 명곡은, 지구촌의 자연을 아름다운 선율로 소개할 것입니다. 주 개최지인 평창의 이미지와도 부합합니다. 알펜시아에서 열리는 메인 콘서트와 찾아가는 음악회는 고정 팬들의 발길을 부를 예정입니다. 올해 처음 시네마 콘서트 형식으로 선보이는 '찾아가는 가족음악회'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은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것입니다.

신임 예술감독 취임 후 첫 음악제인 만큼, 새로운 연주자와 음악적 변화가 예상됩니다. 정통 실내악 파트를 강화하고 해외 연주자들이 대관령음악제 데뷔 무대를 가져 눈길을 끄니다. 특히 전쟁 아픔을 겪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음악인들의 공연은, 평화를 염원하는 음악 팬들의 호응이 기대됩니다.

그동안 올림픽 개최지였던 평창과 강원을 세계에 알렸던 음악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고전음악 축제로 자리잡았습니다. 세계적 거장들이 연주회의 수준을 높였고, 신진 음악가들이 성장할 수 있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20돌은 맞아 더욱 성숙하고 수준 높은 음악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음악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해 생동감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평창을 비롯해 지역 사회, 도민과의 친밀도를 높이는 일도 중요합니다. 주최 측의 노력과 관객의 호응이 음악제를 성장시킬 것입니다. 더불어 음악제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소홀히해서는 안 됩니다. 평창군민뿐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클래식 음악제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07 28 ()

/ 21

‘강원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서둘러야

-자치분권·균형발전 통합, 지역발전 견인 기대

지난 10일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대통령 직속 기구입니다. 그동안 분권 정책과 균형발전 정책이 분리됨으로써 지방정책의 효율적 추진이 어려웠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향후 5년간 추진할 지방시대종합계획 수립, 지방 정책결정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동기 초대 지방시대위원장은 “살고 있는 지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회와 생활의 격차가 생기는 불평등은 멈춰야 할 때”라면서 “균형발전이라는 국토공간의 공정성과 지방분권이라는 중앙권력의 공정성을 토대로 지방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균형발전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양날개를 통해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기본방향과 관련한 정책 조정,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지원,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활성화,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과 육성 등 한층 확

대된 권한과 역할로 지역발전을 선도할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도 기획재정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 지방정책 수립과 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위촉돼 명실공히 지방시대를 주도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해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역 중심의 지방정책 수립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시대위원회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했습니다. 특별자치도의 선두주자답게 발 빠르게 남다른 추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산적한 현안을 생각할 때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준비가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안, 특히 관련 조례 제정을 완료하기까지는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조속히 관련 계획을 도민에게 제시하고 동의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江原日報

2023 07 28 ()
/ 25

고향사랑 기부 전국 2위, 道 결집 새로운 신호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민의 삶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은 사정이 좀 좋지만 그렇지 못한 농어촌 지역은 소득, 고용, 교육, 건강 측면에서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2007년 말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논의가 10년간 표류하다 2017년 국정과제 채택과 법안 재발의를 거쳐 4년 만에 제정(2021년 10월19일)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방안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깊다. 더욱이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반년이 지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와 도내 시·군 기부액이 전국 2위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높은 실적은 강원자치도 발전의 새로운 가능성과 결집력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6월 말 기준 1~6월 강원지역 고향사랑기부제 실적은 18억2,676만원(시·군 기초자치단체 포함)에 달했다. 비공개를 요청한 지역을 제외하고 기부 금액 규모로 경북(26억4,325만원)에 이어 2위를 기록했고 누적 기부 건수는 1만2,830건이었다.

강릉시가 1억3,836만원(1,4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춘천시가 1억3,662만원(1,209건), 평창군이 1억3,042만원(909건)으로 뒤를 이었다. 철원군이 1억2,589만원(809건), 삼척시 1억1,806만원(1,028건), 원주시 1

억1,620만원(547건)으로 높았다. 최근 지역인구의 대도시 유출로 인해 지역사회는 활력이 저하되고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을 떠나 외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향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향에 거주하는 이웃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우리 사회의 상생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이 금액 범위 내에서 한 자치단체에 집중적으로 기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자치단체에 나눠 기부를 할 수도 있다.

기부금 10만원 이하

에 대해서는 전액 세액 공제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이와 별개로 기부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받는다. 따라서 만약 개인이 10만원을 특정 자치단체에 기부한다면 오히려 3만원을 벌어가게 되는 구조다. 자치단체는 이렇게 기부받은 재원으로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다. 특히 2023년은 강원자치도의 원년이다. 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집중 홍보해 기부금이 더 많이 예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자치단체는 이 기부금으로 어떤 서비스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도내 실적 18억2,676만원, 1위는 경북

개인, 지자체에 연간 최대 500만원 가능

시·군, 기부금으로 어떤 사업 할지 고민을

江原日報

2023 07 28 ()

/ 25

출생아 두 달 연속 역대 최소, 지역 소멸 막을 대책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출생아 수가 두 달 연속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5월 인구동향·6월 인구이동'에 따르면 5월 도내 출생아 수는 54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 출생아 576명 대비 35명 감소한 것으로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81년 이후 역대 5월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올 4월 출생아 수가 역대 4월 중 가장 적었던 데 이어 5월도 역대 최소치를 기록한 것이다. 같은 달 도내 사망자 수는 1,152명으로 조사됐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는 612명 감소를 기록했다. 올 들어 월별 가장 높은 감소치다. 도내 인구는 2016년 8월부터 자연감소 중이다. 인구 감소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치로 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물론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정부와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서둘러 수립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최근 혼인 연령은 계속 늦어지고 있다. 혼인 건수도 줄어들고 있다. 혼인 이후 아이를 출산하지 않거나 일정 기간 이후 아이를 낳는 지연 출산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자녀 출산이 늦어질수록 다자녀 출산 가능성은 더욱 적어질 수밖에 없다. 혼인을 하고도

아이를 낳지 않고 부부만의 삶을 추구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저출생 기조를 바꾸는 게 쉽지 않다. 그동안 정부가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는 것만 봐도 그렇다. 인구 문제는 강원자치도의 과제가 된 지 오래다. 지역이 발전하고 경제 성장을 하려면 일정한 수준의 경제활동인구가 유지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속도로 인구 감소가 이어지면 지역사회의 경쟁력은 갈수록 추락할 수밖에 없다.

인구 문제는 고령화, 지역 소멸 등과 연동돼 있다. 경제활동인구가 줄면서 경제는 점점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자칫 때를 놓치면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투입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과국을 맞을 수도 있다. 이제 시행착오를 벗어나 실질 대책을 실행해야 할 시점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은 곳',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는 게 행복한 지역'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무엇이 아이를 낳지 않고 고향을 떠나는 현실을 초래했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청년들을 직접 만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